

작품 행위를 하는 '나'는 내 작품 속에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나의 눈은 오직 밖을 향해서만 열려 있고, 나의 작품은 나와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가. 작가 자신은 작품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작품과 작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그렇다면 감상자는 작품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작가를 유추할 수 있는가. 작가의 컨셉을 작가라고 본다면 감상자는 작가의 무엇을 보는 것인가. '사유'와 '기능'만을 보는 것인가. 본다'라는 행위로 교감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만큼인가. 작품 속에 들어간 작가 자신을 해명하라고 한다면 작가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단지 작가는 눈을 밖으로만 뜨고 세상의 문제를 질타하는 자인가. 거기서 제 존재의 알리바이를 구하는 자인가. 이런 의문이 이번 작품들의 화두다.

나는 그 해답을 부분과 전체, 부분 속의 전체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나의 작품 하나는 내 몸처럼 한 덩어리의 전체이지만, 각 부분을 들여다보면 작은 부분들 각각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완결성과 풍성함을 지니고 있다. 내 작품은 하나의 작품이지만, 부분으로서는 몇 백 개의 작품들이다. 이것은 마치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회화 본연의 임무를 조각을 통해서 현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나는 보이는 몸으로서의 하나의 전체로서의 장소이지만 내 몸에는 복잡다단한 시간과 사건, 인물, 관계, 사회구조가 새겨져 있다. 나는 그런 장소의 몸을 구축한다. 나는 하나의 몸이지만 내 몸에는 내가 아닌 수천의 몸이 기생한다. 그들은 나의 감정이 되고, 감각이 되고, 사유가 되었다. 나는 내가 되기 이전의 바로 그들을 내 몸이라는 장소에 이입하고 있다. 그들 각자는 나와 똑같은 하나의 장소이며 현재다. 그들은 하나씩의 전체이다.

나는 나라는 얼굴과 몸에 숨어 있는 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한 '비가시적인 것들의 환원'이라는 부분의 노출을 통해서, 나의 현상인 '그들'을 하나의 조각 안에 혼합, 병렬 조각한다. 그럼으로써 '나'와 '그들'간의 이중구조, 내 몸이라는 복잡다단한 다층적인 현상을 조각한다.

내가 느끼고, 듣고, 본다는 것은 나의 몸에 타자들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의 감각이 되었지만 감각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들은 나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였고, 지금도 개별적 주체이다. 그들은 물질성과 주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부딪힘으로써, 나에게 옴으로써, 나에게 와서 느낌, 감정, 사유가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처럼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한 송이의 꽃이 되었다. 너는 꽃이 됴으로써 '나'를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나임을 인식하게 했다. 나는 나에게 와서 하나의 느낌, 사유, 감정이 되기 전의 그들의 물질성과 주관성을 존중하고자 그들을 형상화한다. 그들이 내 조각의 부분의 전체이다. 나는 거리에서, 집에서, 기억 속에서, 빛 속에서 만나고, 다투고, 헤어지고, 사랑한다. 내 몸은 내가 수행한 행위들 속에서 나를 구성한다. 나는 이 객관적인 몸이라는 하나의 오브제를 햇빛 속의 타자들을 통해 주관적인 몸으로 환원할 수 있었다. 내가 주관적인 몸이 되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활동이 아니라 타자들의 부딪쳐움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나는 이 타자들을 내 몸에 접착함으로써 비로소 나의 주관성을 얻었다. 나는 타자에 의해서 나를 감응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대상들 없이는 불가능했다.

몸은 빛을 받은 낮이라는 이 거리의 전시장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등장하지만, 밤이 오고 빛이 꺼지면 어둠 속에서 외면되어왔던 비가시적인 영역들이 솟아오른 주관적인 몸으로 변용된다. 몸은 모든 것이 외면적으로 가시화되는 세계 속에서의 나타남이지만 이 세계의 존재 방식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다른' 삶이 솟아오르는 비가시적인 장소가 된다. 나는 내게 살고 있는 그 비가시적인 영역의 가동인 '타자'들과의 만남과 부딪침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살아낸다. 그 시간 나의 몸은 내 앞에 놓인 하나의 대상으로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다시 환원되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 환원의 작용 안에서 가시적인 것의 비가시적인 것 되기, 다시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적인 것 되기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 작용 안에서 포착된 나의 몸의 전세계와 얼굴의 전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나의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라는 창작자가 자기감응, 자기감각, 자기감정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밖을 어떻게 내면적으로 현상하는지, 그 밖이 내면적인 내 삶의 내용이 되기 이전의 밖의 주관성과 물질성은 어떻게 얼마만큼 독립적인 밖이었는지를 탐구한 작품들이다. 아울러서 끊임없이 타자와 접촉하면서 현재를 생산해 내 기억이 된 나의 타자들도 마찬가지로 형상으로 만져졌다. 나는 일기를 쓰듯 나의 밖을 나와 접촉, 충돌시켰고, 다시 그것은 내 손의 주물럭거림이라는 노동 행위를 통해서 현상되었다. 나는 그것이 가장 인체에 가까운 색과 물질성을 갖도록 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몸이 아닌 육화가 진행되는 타자의 몸, 물질의 몸, 나의 밖이 나라는 감응자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파토스와 기형이 진행되는 몸을 생성하는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하여 내 작업을 타자를 모시는, 안이 되기 전의 밖을 모시는 내 몸의 현상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 전시에서 나의 작업 모두가 작품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분도 하나씩의 작품, 수백 개의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하였다.